

일본의 당뇨병 현황

일본은 전체인구의 약 5%가 당뇨병인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당뇨병성 신증으로 인공투석을 해야만하는 당뇨병인의 수가 약 8,200여명,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맹인이 되는 당뇨병인의 수가 약 3,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글은 일본당뇨병협회지인 SAKAE 11월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오 리나라는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약 2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웃나라인 일본의 당뇨병 인구는 약 600만명으로 일본의 의료재정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1996년 3월말에 일본의 인구가 약 1억2천4백만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전체 인구의 약 5%가 당뇨병인 셈이다. 연간 당뇨병성 신증으로 인공투석(人工透析)을 부득이 해야만 하는 당뇨병인이 약 8,200여명 정도나 되며 당뇨병성 망막증(網膜症)으로 실명하여 맹인이 되는 당뇨병인이 약 3,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인공투석의 도입에 따라 한사람이 연간 소요하는 의료비는 500만엔(약 3600만원)에서 600만엔(4,3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까지 당뇨병에 대한 명확한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뇨병 인구를

확실하게 감소시킬 방법은 없으며 그로 인해 당뇨병 인구의 증가 경향은 유감스럽게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뇨병 발병의 예방(1차예방),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예방(2차예방) 그리고 합병증의 진행을 막기 위한 예방(3차예방) 대책을 포함해서 예방만이 일본의 급선무가 되어 있다.

일본의 한 지방도(道)인 시마내현에서는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당뇨병 환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1973년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내려진 당뇨병 환자는 인구 10만명에 대해서 81.2명이었으나 17년후인 1989년에는 163.2명으로 두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십여년 전부터 당뇨병 환자가 증가추세

에 있는 현실에 대해 지역적으로 당뇨병 대책을 세워 당뇨병의 실태조사와 당뇨병의 발증예방, 합병증의 예방 등 관리시스템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당뇨병 전문의의 수가 너무 적어 지역사회에서 예방을 강조하지만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여 확실하게 처방하고 환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의사와 관리지도 진용이 너무나 적다고 한다.

때문에 당뇨병 전문의에 대해서는 당뇨병학회의 인정의(認定醫) 제도와 당뇨병 전문의 관리지도진용에 대해서는 당뇨병 학회와 일본 당뇨병협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뇨병 요양 지도사의 양성이 시급히 실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DAK**

▶ **알아봅시다**

인공투석이란?

신장장애로 신장기능이 극도로 나빠졌을 때는 요독증을 일으켜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 이 상태가 되면 투석요법을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잃게 된다. 투석요법은 인공신장을 이용하는 혈액투석치료법과 복막투석치료법이 있으나 상당히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치료법이다.

(발취자 본 협회 문계원 상임이사)

社 告

**독자 여러분의 목소릴
듣고 싶습니다!**

월간당뇨는 당뇨인 및 그 가족, 관련 전문인의 대화의 광장이고자 합니다.

당뇨를 관리하면서 겪은 체험수기나 병상일기 등 당뇨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정성껏 받아 실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뇨인을 곁에서 지켜보고 돌보고 있는 가족 및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 의료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수필이나, 산문 및 시 등도 보내주시면 정성껏 실어드리겠습니다.

팩스나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면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월간당뇨에서 발행하는 각종 서적과 당뇨관리용품 등을 사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49 동숭빌딩 4층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월간당뇨 편집실
전화 : 743-9482~3 팩스 : 745-0349